

2. “국제지방행정관회의(International Local Authority Conference) 6.27 ~ 6.30

4016

이번 행사의 핵심이었던 '94 지구환경회의와 병행해서 개최된 국제지방행정관회의는 “도시와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같은 주제를 지방 행정부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각기의 지역사정에 맞는 Local Agenda 21 을 만든 작업을 한 회의였다. 그래서 이 회의는 “Local Agenda 21회의”라고도 부른다.

Page 401

이 회의는 첫날 3개 분과로 나누어진 워크숍을 가졌다. 그 내용은 1분과에서 에너지 문제(지탱가능한 도시에너지 전략), 2분과에서 교통문제(지탱가능한 도시설계) 그리고 3분과에서 녹색 지방경제문제(지방차원의 경제적, 환경적 발전)였다. 이어서 2일간은 Local Agenda 21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지탱가능한 지방행동계획” “Local Agenda 21 운동의 사례연구” “Local Agenda 21의 선례들” “Local Agenda 21의 완성” 그리고 “Local Agenda 21을 위한 협력관계”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Local Agenda 21의 실현을 위한 6개분야의 분반연구모임이 있었다. 분야별 주제로서는 ①행동계획 실현을 위한 사회의식및 공감대 형성 ②과제와 목표 우선순위 설정 ③환경정보 자료수집및 해석 ④지방경제전략 ⑤지탱가능한 지표 그리고 ⑥생태적 도시환경관리 등이었다. 이 회의는 마지막날 쌍방간의, 다자간의 그리고 남북간 등의 국제협력관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5749253

국제행정관회의의 공동주최기관은 영국의 Local Agenda 21위원회, 도시연합(United Towns Organization), 국제지방행정관연맹(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유럽구역및지역협의회(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 Regions) 그리고 국제지방환경사업창시자협의회(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등이었다.

3. “지구환경학술회의(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6.29 ~ 7.1

3일간

김커운 편

지구환경학술회의는 '94 지구환경회의의 특별모임의 하나로서 맨체스터 대학교가 주최한 것이었다. 각급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에 소속되어있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심포지움으로서 이 회의의 주제들은 ①지구환경의 변화 ②지탱가능한 교통 ③개발의 설계 ④공해 모니터링및 분석 ⑤지탱가능한 건강 ⑥도시환경의 관리 ⑦지탱가능한 교육 ⑧지탱가능한 기업과 사업의 관리및 대책 ⑨언론의 역할 ⑩농촌 개발 그리고 ⑪국제법의 녹색화 등이었다.

1124331

'94 지구환경회의를 전후해서 이밖에도 다양한 모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기업측이 마련한 세미나, 평화에 관련된 회의및 행사를 비롯해서 청소년들 또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전개한 행사들도 소규모이기는 했으나 다채로웠다.

II '94 지구환경회의의 의의

'94 지구환경회의는 리우회의 이후 유엔이 마련한 첫 환경관련 국제회의로서 유엔의 지탱 가능한발전위원회와 제네바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의공동미래센터(Center for Our Common

Future)" 그리고 맨체스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이다. ^{① 12. 이 회의는 리우회의 이후 유엔이 마련한 첫 환경관련 국제회의로서 유엔의 지탱 가능한발전위원회와 제네바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의공동미래센터(Center for Our Common Future)" 그리고 맨체스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이다.}

이 회의가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 중의 하나는 세계의 도시들로 하여금 Agenda 21의 28장에

명기되어있는 유엔에 대한 준수사항인 Local Agenda 21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이었다. 또하나의

목표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

를 대비해서 도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모색을 위한 것이었다. 셋째로 이 회의는 지탱가

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로하여금 2000년대의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일이

이 회의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환경관련회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그

것은 첫째 리우에서의 '92 지구환경회의가 너무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나머지 전략적인 쏠점

이 없었다는 비판을 고려해 주제를 도시문제로 한정하고 이 회의가 또하나의 말잔치로 끝나는 회

의가 되지 않기 위해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모색에 힘썼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회의가 정

부 대표와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는 데 있다. 정부대표도 중

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행정관이었다는 것은 리우회의 이후 국제정치의제의 우선 순위로 부상

한 "지탱가능한 발전"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되었던 기존의 틀을 깬다

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민간대표들과 함께한 회의였다는 것은 "지탱가능한 발전"의 실현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공동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로 이 회의가 유의한 것은 무엇보다 더 협력관계 수립이었다. 같은 지역사회 내의 집단

간의, 한 국가 내의 도시간의, 국가간의, 블릭간의, 남북간 등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다각적으로

강조된 점이 두드러졌다. 이 회의의 성격이 대표들이 협약체결 등에서와 같이 국가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었던 관계로 이 회의는 시종 교육장과도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었

다. 대표들 상호간의 정보및 경험 교환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임무수행의 능

력을 키우는데 힘쓴 회의 분위기는 어느 회의에서보다 더 화기에애했다. 이런 점들이 바로 금세

기의 산업혁명의 심장부였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긴 환경문제의 전시장이기도 한 맨체

스터에서 열린 '94 지구환경회의를 국가정상과 고위급의 회의였던 스톡홀름회의와 리우회의에서

와 다른 의미를 가진 회의로 만든 것이라고 본다.

회의기간동안 얻어진 정보 가운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의 첫째는 이미 세계의 많은 도시

(자료에 의하면 20여개 도시)들이 Local Agenda 21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거나 검증단계에 들어가

96년까지의 완성을 위해 서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생태도시운동은 지구환경보

전운동의 저변확대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는 세계의 도시들,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각기의 중앙정

부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도시 또는 지방정부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 조직체 등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로는 도시들로 하여금 자치역량과 자율성을 키우고 그리고 도시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길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쌍방간의 협력관계인 도시간의 자매결연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고 있는 유엔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시별 또는 지역별 "환경 헌장"이 만들어져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맨체스터 헌장" 또는 "유럽 공동체 헌장(The Charter of European Cities and Towns Towards Sustainability)"이다. 오늘의 국경없는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치이다. 최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환경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들도 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동남아 환경 헌장"과 같은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회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리우회의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구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사회의 구조 및 체계에 대한 획기적 개혁의 조짐을 이 회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참가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번 회의에 정식참가도시로 선정된 50개 도시중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Local Agenda 21의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한다.

III 리우에서 맨체스터까지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과개발회의"는 그보다 20년전에 개최되었던 "스톡홀름인간환경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개최된 "맨체스터 지구환경회의"는 리우회의의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와 "'92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에 이어진 후속회의이다.

스톡홀름회의의 과제가 인간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였고 리우회의는 인간의 갈망인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가능하게 할 것인가였다. 20년이란 세월을 사이에 두고 이 회의는 크게 변화한 국제정치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스톡홀름회의는 냉전체제하의 핵의 위협속에서 구 소련방과 동구의 위성국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나 리우회의는 동서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진행되었다. 두 회의 사이의 또하나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스톡홀름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회의의 의도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국가들을 불신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에 있어서 개발된 국가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처지였다. 그런 것에 반해 리우회의에서의 개발도상국들(G77)의 주장과 반발은 대단했다. 개발국들의 기득권 수호 입장과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추진의 의지의 충돌로 리우회의는 남북의 대결장으로 그리고 국가간의 경제외교의 장으로 전락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에 비해 도시화문제에 한해 구체적인 정책논의에 치중한 맨체스터회의는 녹색도시운동의 실무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회의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스톡홀름회의는 유엔환경기구(UNEP)구성을 비롯해 세계의 115개 국가에 환경기구 설치 및 환경관련 법제정 촉진, “환경과개발세계위원회(WCED 일명 부른트란트위원회)” 구성과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라는 지구환경의 상태를 진단한 보고서 작성, 그리고 리우회의를 유도해낸 것들을 들 수 있다. 환경과개발세계위원회는 우리들의공동의미래보고서를 통해 “지탱가능한 환경과 개발”이란 명제를 창출했다. 리우회의는 이 명제에 따라 “리우선언문”과 그 원칙의 행동계획인 Agenda 21과 “산림보호원칙”을 합의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대한협약”과 “생물다양보호협약”을 체결하는데 머물렀다.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Agenda 21의 실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탱가능한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맨체스터회의는 바로 이 위원회의 첫 사업이며 이 회의의 결과물은 앞으로 도시화 문제의 국제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맨체스터회의는 96년 6월에 열릴 예정으로 있는 유엔정주권제2차회의의 길잡이 역할을 한 회의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가 우리를 비롯한 우리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이어질 것이다.

IV 도시화 문제의 중요성과 향후 대책

유엔이 도시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앞서 지적한 2000년대에 이르면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며 나머지 50%의 인구들^중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생계유지에 있어 더욱 도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폭증하게 되며 환경파괴와 사회적 혼란, 실업률의 상승, 그리고 주택문제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등의 도시화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지구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도시들로 하여금 미리부터 그들의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유엔총회는 96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의 회기로 이스탄불에서 유엔정주권제2차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 “도시정상회의(The City Summit)”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도시화 문제를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발전계획의 우선과제로 부각시키는 것을 필두로 도시관리문제와 주택개발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촉진시키고 도시환경문제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기간시설과 봉사기능강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과 기회제공을 도모할 것이다. 유엔은 세계 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평성있으며 지탱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이 회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정주권에 관한 제1차회의는 1976년 6월 밴쿠버에서 개최된 바 있다. 그 회의 결과 “유엔인간정주문제센터(Center for Human Settlements)가 설립되었고 이 기구가 바로 도시정상회의를 주관하는 기구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개의 글(Habitat II, '96 이스탄불회의의 의의와 준비, 유재현)에서 찾아보기를 바란다.

V “Local Agenda 21”

Local Agenda 21의 근거가 되는 리우회의의 Agenda 21은 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150여개국의 국가정부들이 승인한 500쪽 이상의 부피의 문건이다. 이것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개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지탱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정책과 제언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genda 21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늘의 인류가 실행해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①에너지와 자연자원소모 그리고 공해와 폐기물 배출의 감소 ②취약한 생태계 보호 ③남북간의, 국가간의 각 국가내의 사회집단간에 부 그리고 기회와 책임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필요충족과 권리보장을 확보하는 일 등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용이주도하게 계획된 민주적이고도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우연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방수준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의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발전문제에 관한 결의과정에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도 포함된 각계각층의 참여와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교육,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집단들이 협력하는데에서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Agenda 21이 지탱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정부가 행정부차원에서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동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Agenda 21에 명시되어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는 점이다. 즉 의제의 내용의 ⅔ 이상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행동계획이기 때문이다.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부들과 시민들이 Agenda 21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제 28장에서 1996년까지 국가별 또는 도시별의 Agenda 21을 완성해서 유엔의 지탱가능한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행동계획으로서 Local Agenda 21이라 불리워진다. 이미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거나 완료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다. 특히 행정부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협력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다.

Local Agenda 21의 어떤 모범 양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능력의 한계 여하에 따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각기의 Local Agenda 21을 만드는 일에 편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Local Agenda 21 위원회는

그 나라의 도시들로 하여금 각각의 지역 사정에 맞는 행동계획을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런 것은 영국만의 경우가 아닐 것이다.

그 지침서의 내용은 크게 분류해서 지방정부의 할 일과 지역사회의 할 일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①지역사회의 결의를 담은 환경선언문을 만드는 일 ②지탱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지방행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수용하는 일이다. 지역사회의 할 일로서는 ①경각심의 고취와 교육활동의 전개 ②민주적 운영을 위한 시민의 참여유도책을 마련하는 일 ③행정부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각계각층의 집단의 협력을 도모 하는 일 ④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일을 감시감독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는 일 등의 4개분야의 일이다. 이 지침서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Local Agenda 21 작성상의 유의점이 기록되어있다.

Local Agenda 21의 작업은 지탱가능한 발전에 대한 헌신과 결단에서 출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앞서 지정한 6개 분야의 행동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Local Agenda 21의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간단명료하고 접근하기 쉬운 문건으로 작성할 것.
- 명확한 과제 선정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것.
- 환경상태와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의 지표들을 분명하게 포함할 것.
- 각 조직간의 역할분담과 과제의 내용과 일정을 명확하게 하고 실천방법과 성과를 분석 평가할 것.
- 전체 사업의 재조정을 위한 검토를 할 것.

이번 지구환경회의에서 접할 수 있었던 몇 나라의 부분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94 지구환경회의가 열린 맨체스터시의 경우 시의회는 리우회의 이전부터 녹색도시 맨체스터를 만들기 위해 “녹색팀(Green Team)”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맨체스터로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맨체스터 의회는 녹색팀으로 하여금 “맨체스터 Agenda 21”의 작업을 하도록 해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지금은 그의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②미국의 시애틀의 경우 시민들이 전개하는 “지탱가능한 시애틀의 지표”라는 활동이 돋보인다. 이곳은 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그리고 문화와 사회문제에 걸친 40개 항목 (1993년도 20개)의 시애틀의 지표는 앞으로 해마다 조사 분석 발표해서 녹색도시 시애틀을 만들겠다는 활동이다.

이 작업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당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들의 활동은 높이 평가 받았다. 이들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더러의 지표는 향상된 것에 반해 보다 많은 지표에서 악화일로에 현상에 직면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을 지탱가능한 도시 생태적 도시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③가까운 일본의 가와자키시는 21세기를 향한 녹색도시를 꿈꾸며 “가와자키 신시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들의 활동이념은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복지도시, 세계에 개방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한 시민 자치를 존중하는 도시, 그리고 시대를 주도하는 힘이 넘치는 도시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이 도시는 “가와자키 신시대 2010 계획”이라는 종합계획 하에 “지구시민시대에 있어서 인간도시의 새로운 창조”라는 목표를 세워 녹색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들은 “생태감시 25(Eco Check 25)”라는 생태계 상태를 점검하는 25개 항목을 설정하고 도시의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도시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상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없게 하는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안고 있는 것이 이 회의의 참가도시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발국가들의 도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도시들도 이 과제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간과 함께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생태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VI 우리의 과제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의 다자간의 환경협약은 1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5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서명해 놓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지구환경보존에의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이 되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협약이나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중앙정부가 “한국 Agenda 21”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들도 “Local Agenda 21”을 각각의 지방사정과 특수성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아직 Local Agenda 21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국경없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동원 94-9-2 지대.

경제기획원 어 지구환경기획관 회의자료 (오창명 Mark 제39회 집회)
"Agenda 21"을 구체화하기 위해

귀하께서 이해 관계가 많은 "Agenda 21"의 실행계획을 작성해주셨고

Agenda 21의 행동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비록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내년 초로 앞두고 있지만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환경정책면에서 보면 양극현상이 생겨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환경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가치시대에 대비해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재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각급 행정부로 하여금 해당 Local Agenda 21을 만들도록 하는 작용도 최근 크게 성장하여 그 영향력도 상당한 민간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몫이다.

Agenda 21에 제시되어있는 각 국가들의 유엔준수사항 가운데에는 Local Agenda 21의 제출만이 아니라 국가들로 하여금 지탱가능한발전을위한 국가별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기며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는 '94 ~ '96의 2년간과 '96 ~ 2000년까지의 5년간의 사업계획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탱가능한발전을위한 한국위원회는 96년도에 개최예정인 유엔정주권제2차회의의 참가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열리게 되며 경제대국서열 10위이며 남북한 인구 합하여 7000만의 인구를 가진 중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대책은 강경해질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회의도 빈번해지고 규제 또한 엄격해질 것이다. 세계의 도시화문제를 비롯한 환경대책에 우리는 외면해도 되는 위치에 있지 않다.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UR에서나 GR에서 우리나라의 뒤쳐진 대처로 손실을 입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Local Agenda 21 작업은 서둘러야 한다.

이 Workshop 이

한국이 Local Agenda 21 실행을 위한 제기 기로에 있다

선발된 50개 도시 명단

	중/소 도시	대도시	합계
Africa	4	1	5
Asia	15	7	22
Europe and ex-SU	7	3	10
Latin America	5	3	8
North America	3	2	5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Bogota, Colombia	Bridgetown, Barbados	Buenos Aires, Argentina
Guatemala City, Guatemala	Mexico City, Mexico	Montevideo, Uruguay
Quito, Ecuador	Rio de Janeiro, Brazil	Sao Paulo, Brazil

NORTH AMERICA

Chattanooga, U.S.	Des Moines, U.S.	New York, U.S.
Seattle, U.S.	Toronto, Canada	

AFRICA

Cape Town, South Africa	Nairobi, Kenya	Dakar, Senegal
Bulawayo, Zimbabwe	Tunis, Tunisia	Accra, Ghana
Alexandra, Egypt		

ASIA

Adelaide, Australia	Bombay, India	Cebu City, Phillipines
Chiang Mai, Thailand	Colombo, Sri Lanka	Dhaka, Bangladesh
Hong Kong, China	Karachi, Pakistan	Kathmandu, Nepal
Kita-Kyushu, Japan	Penang, Malaysia	Surabaya, Indonesia
Suva, Fiji	Wuhan, China	

EUROPE

Alma Aty, Kazakhstan

Bologna, Italy

Manchester, England

Perm, Russia

UK suprdelagation

Barcelona, Spain

Göteborg, Sweden

Nancy, France

St. Petersburg, Russia

Berlin, Germany

Krakow, Poland

Pecs, Hungary

The Hague, The Netherlands

MIDDLE EAST

Istanbul, Turkey

Amman, Jordan